

잘 되는 곳엔 특별함이...

모범신도단체 노하우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광사, 능인선원, 안국선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안양 한마음선원 등은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찰들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조직과 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모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그들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절에 가면 할 일이 있다

이들 사찰의 최대 장점은 불자들이 그 사찰에서 분명한 할 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불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행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재적사찰 또는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강조하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경우 신도들은 60여 봉사단체 가운데 한 곳에 적을 두고 간병, 호스피스, 급식, 기도봉사 등을 도맡는다.

출판사, 꽃집, 찻집, 탁아방, 상담소, 시민선방 등도 신도들이 알아서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무

리 낚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신도들은 '나도 사찰의 구성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물리아 다루기 편하다? No

옛 모르고 따라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시대흐름을 파악하는 등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자들은 사찰에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얻거나 채워주고 싶어한다. 조계사, 불광사, 능인선원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등의 신도교육은 이같은 불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

조계사와 능인선원, 관음사의 불교대학을 통한 신도교육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불교대학의 체계적인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신도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도 불자들은 기꺼이 교육과정을 거쳐 개개인이 '열혈신도'가 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찰로 이끈다. 능인선원과 관음사의 성장을 이룬 가장 큰 동력이 바로 불교대학이다.

#핵심은 체계적인 조직 관리



그림·박구원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신도간 서로 관심을 갖도록 한 점은 다른 사찰로 옮기지 않는 중요한 모티브다. 체계적인 조직관리의 포인트는 '관심'이다.

5만여명의 신도가 있는 한마음선원 본원, 200여 동단위 수행회를 묶어 37개 구단위 수행회를 이루고, 구단위 수행회들이 모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수행회를 형성한다. 지역 수행회는 600여 거사로 구성된 범형제회와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와 함께 전체신도회로 운영된다.

일에 대한 책임감·주인의식 투철

철저한 교육 통한 '열혈 신도' 육성

특수성 살린 조직체제로 힘 발휘

다.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관음사 등도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도회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적인 운영으로 효율을 높이는 점도 큰 특징이다.

반면 능인선원과 관음사는 교육체계를 그대로 신도조직체로 연결하고, 지역단위 수행회를 결합시켜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다. 안국선원은 입문과정을 이수한 신도를 40여 신도조직에배속시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환경·특수성 심분 활용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사찰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는 때로 신도조직 관리에 있어서 장점이 되기도 한다. 조계사와 봉은사가 대표적인 사례.

'한국불교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신도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불자들이 많은 서울 조계사. 1만 5천 세대가 신도로 등록돼 있지만 신도조직에 포함된 인원은 1천여명에 불과하다. 신도조직체계를 갖추기 전부터 다니던 신도와 신도회에 몸담지 않은 기도 위주의 신도가 많기 때문이다.

조계사와 봉은사는 조직체계를 갖추기 전

신도들을 역지로 조직체계에 끼워 넣지 않고 새로 등록한 신도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인 셈이다. 조직체제로 귀속된 신도들은 많지 않지만 신도회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다. 신도조직체계를 심분 활용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특수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박봉영 기자

“직장인들이여, 수요일엔 봉은사로”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는 직장인을 위한 수요야간법회인 '반야심경' 강좌를 11월 30일 시작했다. 박인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강의로 열리는 이 강좌는 내년 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법당에서 열린다. 봉은사는 이 강좌가 끝난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11월 30일 첫날 60여 직장인들이 강의 듣고 있는 모습. (02)511-6071~3 박봉영 기자

불교산악인련, 청소년 환경 산행 12월 18일, 청양 칠갑산서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12월 18일 청양 칠갑산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환경사랑 산행'을 떠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산행에는 산악인불자들과 회원 자녀, 청소년불자 등 100여명이 함께 한다.

특히 불교환경연대와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의 협조를 받아 환경교육과 오락시간이 마련되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갑산내에 위치한 장곡사에서는 산악인불자와 청소년불자가 함께하는 법회도 열릴 예정이다. (02)735-1108

청불회, 12월 14일 송년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는 12월 14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2005 송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병준 청와대불자회장(정책실장)의 인사말, 발원문 낭독, 감사패 증정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어를 내린다. 법회 후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송년사, 축배 등 송년리셉션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단체 이사람



조종만

전력인불자연합회 사무국장

18개 한국전력공사 소속사업소와 전력그룹사로 구성된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김영만, 이하 전불련). 최근 김영만 한전 본사 영업본부장을 공동회장으로 추대, 본사 반야회와 전불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열린 연합법회에서는 불자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지사가 참석해 전력인불자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조종만 사무국장(47·한전 거래소계통운영처 급전운영팀)

부장은 전불련내 이 같은 분위기에 누구보다 흡족하다. 2년 동안 사무국을 이끌어오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전불련 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터불교의 어려움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참석률이 낮아 활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다행히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돼 전불련 활성화의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 국장에게 일터불교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다. 불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원이 없으면 금방 활동이 중단

되는 사례를 보면서 큰 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로 인해 전불련내 각 지회간, 회원간 교류활동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회사내 신생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과 같은 외적인 환경이 아닌 우리 내부의 나태함과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로 인해 참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생력 또한 키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오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들로 부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부쩍 힘이 난다

는 조종만 국장은 10년전 한전 반야회 성지순례에 따라 갔다가 도공(道空)이라는 법명을 받고 비로소 불자가 됐다.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기억으로 늦깎이 입문을 했지만 전불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신념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탄탄하다.

"일하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전력인불자들이 같은 뜻과 마음을 지닌 불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력인불자들이 불교로 인해 직장에서 새로운 자평을 열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봉영 기자

“환자들에 자비의 연꽃 심어주자”

건국대병원 법당 개원, 12월 10일 점안식

지난 9월 문을 연 건국대학교병원에 불교법당이 마련된다.

건국대학교병원 불교실(지도법사 법경)은 12월 10일 오후 2시 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법당에서는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식이 열린다.

지하4층 5평 공간에 자리잡은 법당은 앞으로 직원들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도공간으로 활용되며, 병원에 포교당 역할을 하게 된다. 병상

위원, 직원불자회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 등도 법당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법당 지도법사로 위촉된 능인정사주지 법경 스님은 "기독교 민중병원의 불린 건국대병원에 법당을 개원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포교활동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직원과 환우, 보호자들에게 자비의 연꽃을 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2)2030-7963

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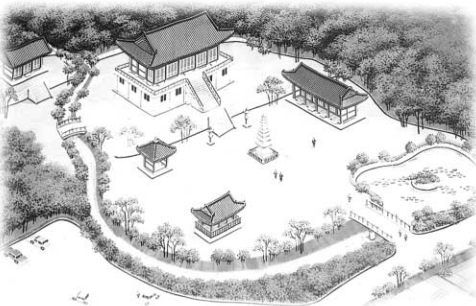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도량

지장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 복원불사 모연문

국내제일의 지장기도영험도량 성거산 성거사가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촛대와 향로 범종마저도 녹아내리는 높은 고열속에서도 본존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은 하나의 손상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중이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직경 2mm-3mm 정도)가 약 5mm-7mm로 두배이상 커진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제일기도도량의 면모를 굳건히 갖추어 증생포교에 더욱더 큰 불은의 가피력을 주고자하는 부처님의 깊은 뜻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몇몇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증과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가 커

진 사실은 매우 희귀하고 보기드문 일로, 커진 부처님의 사리를 전경하는 것은 몇생을 거듭 다시 만나해도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커진 사리의 가피와 공덕은 복종의 최고의 복덕이요,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모셔둔 사찰의 영험은 뜻하는바 소원성취가 반듯이 이루어지고, 커진 부처님의 사리는 가피가 뛰어난 매우 진귀한 사리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뜻하는바 소원성취를 모두 이루시고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합장하고 발원합니다.



성거사 복원불사 조감도



석가모니부처님



부처님의 커진진신사리



가피존자, 목간존자, 부처님존자, 수모리존자, 아나율존자, 아난존자, 정단사리, 부처님배사리, 부처님진신사리

복원불사 동참 목록

- 용마루 : 삼천만원
- 대들보 : 500만원
- 창 방 : 500만원
- 기 등 : 500만원
- 석가래 : 100만원
- 도 리 : 200만원

불상 동참 목록

- 아미타불 : 일천만원
- 관세음보살 : 일천만원
- 대세지보살 : 일천만원
- 문수보살 : 일천만원
- 보현보살 : 일천만원

불사 동참 계좌

- 농협 : 485110-56-018723 / 485049-56-017713 (예금주: 성거사)

불사 동참자 현황

김화순 안희숙 최미자 인치영 고영인 유성용 이등우 정현순 백병국 김진옥 전경옥

◆시주 경덕지의 성함을 영구히 봉헌해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성거사 불사위원회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 041)567-6820